88서울올림픽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는 '86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을 우리 나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센터내에 '올림픽 상품개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동 위원회는 민예품·기념품·일반상품의 디자인 개발 제품에 대한 현장지도 및 상담, 올림픽 상품에 관한 정보수집 및 조사, 국내외 상품의 상설전시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상담과 아이디어 제공, 심의를 마친 신규개발품에 대한 개발 지원자금 대출 추천, 세계 각국의 민예품·기념품·일반상품을 개발지원 하였다.

올림픽 상품개발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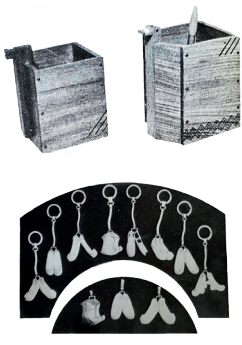
설립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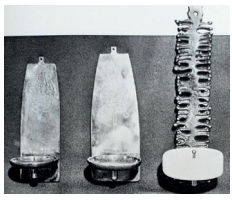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에서는 올림픽 관련 상품의 디자인 개발 업무를 전담하고 업체의 실용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 디자인 포장센터의 디자인 연구원과 학계교수 및 기타 요원으로 구성된 올림픽 상품 디자인 개발위원회를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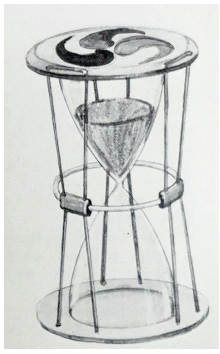
디자인 개발 및 업체지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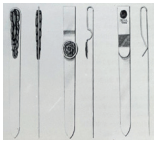
본 위원회는 올림픽 상품의 직접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주요 관련 상품의 품목별 분류기준을 정하고 연도별 개발품목및 수량을 책정하여 1982년부터 1987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올림픽 상품









88올림픽

공식 포스터

디자이너 조영제

서울올림픽의 이념인 '화합과 전진'을 표상하고 있으며, 친숙한 대회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스포츠를 통한 온 인류의 화합을 제창한 순수한 올림픽 정신을 오륜으로 상징, 밝은 빛으로 형상화하여 올림픽의 이상이 온 세계에 달하도록 표현하였다. 또한 타오르는 성화를 들고 달리는 주자의 모습을 통해 인류의 영원인 행복과 번영을 향한 끝없는 전진을 상징하였다.

공식 휘장

디자이너 양승준

휘장은 우리 민족 전래의 문양인 삼태극에서 착상되었다. 삼태극은 예로부터 한옥의 대문, 공예품, 민예품 등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외국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었다. 이 삼태극을 원심 운동과 구심 운동의 두 가지 형태로 형상화한 것이다. 구심 운동 모습은 온 세계인이 서울에서 모이는 것을 표현, 범세계적인 화합을 상징하며 원심 운동 모습은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향한 전진을 나타내고 있었다.

공식 마스코트

© 1983 Seoul Olympic Organizing Committee All rights reserved.

디자이너 김현

호돌이는 옛부터 민화나 전설을 통하여 우리 겨레와 친근한 한국산 호랑이를 귀여운 아기호랑이로 형상화시켜 제작한 것이다. 몸 전체를 곡선으로 처리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오륜 메달을 목에 걸어 올림픽을 상징시켰고 우리 고유의 멋을 더하기 위해 농악놀이의 상모 돌리는 자세를 취하게 했다. 상모끈으로 이루어진 'S'자는 개최 도시 서울의 영문 이니셜을 의미하고 있었다.

공식 성화봉

디자이너 이우성

화로 윗부분에 뚫린 24개의 볼구멍은 제 24회 대회라는 것을 상징하며, 화로 외부에는 2마리의 용이 성화를 감싸고 있는 형상을 양각하여 무진년 용의 해에 거행되는 행사를 나타내 주고 있었다. 칠보로 조각한 화로 밑 부분의 엠블렘은 매우 고급스러운 감각을 표출하고 있는데, 디자이너는 전체적인 형태는 고대 궁중에서 사용하던 용 무늬의 화로를 현대 감각에 맞도록 디자인한 것이라고 하였다.